여수시 ‘통합 현충원’ 지역민 통합 끌어낼까

자산공원·선원동 접근 어렵고 비좁아 웅천 이순신공원 이전 추진
찬반 여론·구 여수권 이전 주장 등 난제…11월 추경안 반영 노력

여수지역 두 곳으로 나눠진 현충탑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3려 통합 이전 건립된 자산공원(구 여수시)현충탑과 선원동(구 여천시) 현충탑 두 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현충일 행사를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접근이 불편하고 장소도 비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이다.

여수시는 차량진입의 어려움 등 불편을 호소하며 통합 현충탑 건립을 요구하는 보훈단체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웅천 이순신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전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와 구 여수권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통합 현충탑 조성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여수시 자산공원에 통합 현충탑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통합만 들어가면 반대하며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유공자 예우와 애국심·애향심의 신장을 위해 통합현충탑 문제를 올바로 인지하고, 시가 안건 재상정 시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현충탑을 자산공원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며, 구 여천권과 여수권 유공자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웅천 이순신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보훈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 현충탑은 민선 4기부터 논의가 되어 이미 합의가 된 오래된 문제이며, 의회에서도 구두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많은 지역에서 현충탑을 고지대에서 접근성이 좋은 평지로 옮기는 추세이고 이는 국가보훈처도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로한 유공자와 가족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시민과 학생,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애국심, 애향심을 고취하는 교육적 효과도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는 두 곳의 현충탑을 통합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난 6월 추경 안에 편성했으나여수시의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며 통합 현충탑 건립을 요구하는 보훈단체 등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여수시의회도 지난달 30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최로 지역 보훈·안보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통합 현충탑 건립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현충탑 건립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지만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통합 현충탑 건립 취지를 좀 더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시민들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는 이순신공원이 통합 현충탑 위치로 적절하다는 주장과 용역실시 이후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현태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 현충탑 건립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제5회 추경안에 통합현충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 장소 선정, 규묘 및 행태제안,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캐릭터 ‘루미·뚱이’ 무료 배포

15일부터 선착순 4만명

순천시가 순천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순천시 캐릭터 ‘루미와 뚱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순천시청 채널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세계 문화유산 선암사의 승선교, 자연유산인 순천만의 갈대밭과 2023정원박람회의 분화구 정원 등을 이모티콘에 담아 순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모든 연령층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치있는 모습들로 구성됐다.

카카오톡에서 ‘순천시청’을 검색한 뒤 채널을 신규추가하면 선착순 4만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0일간 사용 가능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역대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4년간 145억 투입…향교~보건소 일원 청년 로컬로드 조성 등

보성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이 주관하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근린 유형으로 ‘걸어서 보성 속으로, 젊음의 활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보성’의 테마로 보성리 향교일원에서 보건소 앞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일원(15만2400㎡)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동윤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세대 이음 마당 조성사업, 청년 로컬로드 조성사업, 다함께 상생센터 조성,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사업과 동윤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지 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 외관정비, 향교 안길 등 동윤동 일대 골목길 정비, CCTV 설치, 보안등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 친화적 주거지를 조성한다.

세대 이음마당 조성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공간에 꿈 가꿈 센터, 건강센터, 하늘마루(도시광장) 등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청년 로컬로드 조성사업은 로컬 청년 점포와 기존의 상가 점포를 연계해 지역 문화를 살린 특화 상가로를 조성, 마을 해설사 등을 활용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와 경제에 스토리를 부여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확장한다.

다함께 상생센터 조성사업은 지역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상생상가로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 마을카페와 상생협력상가를 입점시키고 창업인큐베이팅실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예비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역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군은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을 통해 도시재생대학, 기록화사업,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운영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역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도서관 가는 날’ 인기

초 3 대상 독서능력 향상 등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도서관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광양희망도서관과 광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희망도서관은 연간 학사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광양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았다.

참여 희망학교 모집 결과 14개 학교(875명)가 신청하는 등 지역 초등학교의 큰 관심 속에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모든 수업은 매일 한 반씩(20~3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하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지역 초등학생들이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장현정 작가의 강연을 듣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김순호(가운데) 구례군수가 12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큰 산 아래 사람들’ 사진전을 둘러 보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옛 사진 속 추억여행 떠나요

지리산역사문화관 기획전

구례군이 12일부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큰 산 아래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례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기획사진전을 선보인다.

구례군은 ‘함께 즐기고, 함께 일하고’라는 콘셉트로 옛 혼례, 품앗이, 울력, 화전놀이, 장터씨름, 약수제 등 모습과 50년대 학교 교육 및 옛 농업활동 사진 등 다양하게 구례의 옛 사진들을 전시했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할 체험용 소품으로 광주리, 키, 작두펌프, 물레, 절구통, 재봉틀, 호롱불 등을 함께 전시대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실루엣을 따라 재밌는 포즈를 취하며 직접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추억의 레트로(복고)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학교교실 및 교복체험 공간과 통학버스를 연상한 그 옛날 여객버스를 연출하여 소소했던 일상, 학창시절과 놀이의 모습을 담아낸 과거사진 속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느껴보고 회상하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담아가는 전시회로 구성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또 전시관을 돌아보고 난 뒤 관람객이 기억에 남을 이벤트로 캡슐 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뽑도록 디스플레이(전시)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힐링 체험의 기회와 ‘10년후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도록 했다.

한편 지리산역사문화관은 3개관으로 운영되며, 제1관 기획전시동, 제2관 상설전시동, 제3관 체험전시동으로 배치되어 있다. 옛 추억을 그리는 생활소품 활용, 학교모습 재현 및 교복체험 등 복고주의 감성으로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